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감성지능 및 자아탄력성과 진로정체감의 관련성

정유선^{1*} · 권미영²

¹백석문화대학교 치위생과 부교수, ²수원과학대학교 치위생과 부교수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Self-Elasticity and Career Identity of Dental Hygiene Students

You Sun Jung^{1*}, Mi Young Gwon²

¹Department of Dental Hygiene, Baekseok culture Univeresity, Associate professor

²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uwon Science College, Associate professor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whether the career identity of dental hygiene students is related to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lasticity.

Methods: The subjects were 318 students in the first, second, and third grades. Career identity refers to self-confidence in oneself, and emotional intelligence is a factor that determines one's thoughts and actions by understanding, discriminating, and controlling the emotions of oneself and others. Self-elasticity is flexibility that controls individual abilities and allows them to grow positively.

Results: Factors affecting career identity were found to have an effect on major satisfaction, academic performance,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lasticity, and explanatory power was 38.6% (F: 20.690 p=0.001).

Conclusion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career identity by creating positive goals for the job and improving positive emotional tendencies.

Keywords Career identity, Dental hygiene, Emotional intelligence, Major satisfaction, Self-elasticity

Received on Oct 29, 2022. Revised on Nov 22, 2022. Accepted on Nov 26, 2022.

* Corresponding Author (E-mail: jysok@bscu.ac.kr)

I. 서론

현대의 경제 사회는 대공황과 유사한 고금리, 고물가 시대를 예견하고 있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무게감을 느끼며 살고 있다. 이에 진로선택에 있어 각자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향에 대해 폭넓은 고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선택 시에는 적성과 취미와 의지보다는 경제적인 안정감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자신의 능력이나 흥미 없이 선택한 진로는 끊임없는 방황과 고민으로 좌절감과 이직을 선택하게 되는 동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진로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식 획득을 위해 환경적 탐색과 자기 탐색 등 활발한 진로탐색 활동을 통해 진로정체감을 높여야 하며[1] 특히 치위생과 학생들은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치위생과의 많은 학생들은 이미 직업을 선택한 상태이고, 더욱이 본인의 적성과 흥미보다는 취업률,

성적, 주위의 권유 등으로 학과를 선택한 경우가 많아 치과위생사로서의 뚜렷한 진로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한 채 대학생활을 보낸다면 향후 낮은 직업만족도와 높은 이직률을 보이기 쉽다[2]. 따라서 치과의료분야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치위생과 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진로정체감은 진로에 대한 자신의 확신 정도이며, 직업에 대해 자신의 목표, 흥미 및 능력에 대해 명확하고 안정된 상(picture)을 갖추었느냐는 것을 말한다[3]. 치위생과 학생들은 진로정체감과 가치관을 확립하고 인생을 계획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진로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진로정체감 외에도 성공적인 대학생활과 전공만족을 위한 중요한 예측 요인에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있다.

먼저 감성지능은 인간이 느끼는 심리적인 성향 중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여러 상황 속에서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4].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신

의 직무에 대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5], 감성지능이 낮은 사람은 갈등을 일으키며,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정도가 높게 평가되었다[6]. 따라서 감성지능은 대학생활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치위생과 학생들이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자아탄력성은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나 역경에 대해 행동이나 정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상황을 재구성하여 융통성 있게 반응하며, 객관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7]. 자아탄력적인 사람은 대학생활에 만족감이 높아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으며, 긍정적인 정서를 이용해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회복한다고 하였다[8]. 이에 치위생과 학생들은 학업성적과 임상실습에 대한 부담감과 면허 취득을 위한 국가고시 준비에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있으므로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을 통한 대학생활의 적응 수준을 평가해 보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치과위생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치위생의 본질과 철학을 중요시하는 사고와 행동으로 전문치과위생사의 긍정적 이미지를 찾아가야 한다[9]. 따라서 확고한 이념과 목표의 전문치과위생사 활동을 위해서는 치위생계의 미래를 책임질 치위생과 학생들의 바람직한 진로정체감, 긍정적인 감성지능 및 올바른 자아탄력성의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 중 감성지능[10,11]과 자아탄력성에[12,13] 관한 연구도 있고, 진로정체감에 관한 연구[14,15] 도 있으나 감성지능, 자아탄력성과 진로정체감과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감성지능, 자아탄력성과 진로정체감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치과위생사가 되기 위한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과 지도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와 충청남도 소재 일부 치위생과 학생으로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2022년 8월 29일~9월 14일 동안 1학년 101명, 2학년 119명, 3학년 98명을 대상으로 설문 동의서를 받고 설문하였다. 총 318명이 응답하였다. G-POWE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

준 0.05, 효과 크기 0.25, 검정력 0.95로 세 그룹 비교 연구의 대상은 300부였으며, 본 연구대상은 318명으로 설문 응답 수를 충족하였다.

2. 연구방법

치위생과 학생들의 학년과 치위생 전공만족도, 학과성적은 3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전공만족도와 학업성적에 따라 높은 그룹, 중간그룹, 낮은 그룹으로 하였다.

1)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은 진로에 대한 건강한 자기 확신 정도를 말하며 직업에 대한 자신의 목표, 흥미 및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상을 갖췄느냐는 것을 의미한다. Holland, Daiger 와 Power[3]가 개발한 My Vocational Situation을 한국 상황에 맞게 번안하고 수정한 권[16]의 설문 14문항을 사용하였으며, 4점 척도로 역환산하였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6번 문항은 역채점과 달리 채점하였다. 선행연구 권[16]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8$ 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0.769$ 이었다.

2) 감성지능

감성지능은 자신이나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는 개인의 능력으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 변별, 통제하여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할 요소를 도출하는 능력이다. 감성지능 도구는 Wong & Law[4]의 집단 연구를 위해 개발한 심리측정학적인 자기 보고식 측정법 WLEIS(Wong &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를 번안한 박[10]의 설문 도구를 사용하였다. 감성지능은 자기 감성 이해, 타인 감성 이해, 감성 활용, 감성 조절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고, 총 16문항이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선행연구 박[10]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47$ 이었고, 본 연구의 자기 감성 이해 신뢰도 Cronbach's $\alpha=0.777$, 타인 감성 이해 신뢰도 Cronbach's $\alpha=0.789$, 감성 활용 신뢰도 Cronbach's $\alpha=0.803$, 감성 조절 신뢰도 Cronbach's $\alpha=0.825$ 이었다.

3)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능력을 조절하고 변화하는 환경에서 개연성 있는 상황적 사건에 대한 풍부한 적응능력이며,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융통성이라고 하였다. 자아탄력성의 측정도구 자아탄력성 척도검사 EgoResiliency Scale(ER)과 자아탄력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Reivich& Shatte[17]을 번안하고 이[18]가 사용한 설문 도구로 하였다. 총 26문항으로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 탄력성이 높다. 선행연구 이[18]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64$ 이었고 본 연구의 통제성 신뢰도 Cronbach's $\alpha=0.794$, 긍정성신뢰도 Cronbach's $\alpha=0.887$, 사회성 신뢰도 Cronbach's $\alpha=0.864$ 이었다.

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을 위해 R-program을 사용하여 진로정체감, 감성지능(자기감성, 타인감성, 감성활용, 감성조절), 자아탄력성(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의 빈도 분석을 하였다. 전공만족도 그룹, 학업성적 그룹과 진로정체감, 감성지능(자기감성, 타인 감성, 감성 활용, 감성 조절), 자아탄력성(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ANOVA를 실시하였다. 전공만족도 그룹, 학업성적 그룹과 진로정체감, 감성지능, 자아탄력성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진로정체감, 감성기능, 자아탄력성의 평균

본 연구의 참여한 학생들의 진로정체감, 감성기능, 자아탄력성의 평균은 <Table 1>과 같다. 치위생과 학생들의 연구대상자의 수는 318명으로 진로정체감 평균은 2.68점으로 나타났다 자기감성 평균은 3.87점, 타인 감성은 3.92점, 감성 활용은 3.41점, 감성조절은 3.38점이었으며, 자아통제성 평균은 3.63점, 자아긍정성은 3.65점, 사회성은 3.50점으로 조사되었다.

2. 전공만족도, 학업성적과 진로정체감, 감성지능, 자아탄력성의 차이

전공만족도와 학업 성적에 따른 진로정체감, 감성기능, 자아탄력성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전공만족도가 높은 그룹은 100명, 중간 207명, 낮은 그룹은 11명이었다. 성적이 높은 그룹은 38명, 중간은 216명, 낮은 그룹은 61명이었다. 전공만족도와 진로정체감의 차이는 전공만족도가 높은 그룹의 진로정체감이 2.96 ± 0.34 점, 중간 2.57 ± 0.30 점, 낮은 그룹이 2.18 ± 0.26 점으로

<Table 1> The average of career identity, Emotional intelligence, Self-elasticity (N=318)

	Average	Standard deviation	Minimum value	Maximum value
career identity	2.68	0.37	1.64	3.86
Self-sensitivity	3.87	0.56	2.00	5.00
Emotionas of others	3.92	0.61	1.75	5.00
Emotionas of utilization	3.41	0.67	1.75	5.00
Emotionas of control	3.38	0.73	1.00	5.00
Self-control	3.63	0.48	2.22	5.00
Self-positive personality	3.65	0.62	1.89	5.00
Sociality	3.50	0.51	2.00	4.44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전공만족도와 자기 감성의 차이는 전공만족도가 높은 그룹이 4.00 ± 0.56 점, 전공만족도와 타인감성의 차이는 전공만족도가 높은 그룹이 4.10 ± 0.55 점, 전공만족도와 감성활용의 차이는 전공만족도가 높은 그룹이 3.67 ± 0.68 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전공만족도와 자아통제성의 차이는 전공만족도가 높은 그룹의 자아통제성은 3.77 ± 0.48 점, 중간 3.57 ± 0.47 점, 낮은 그룹은 3.40 ± 0.43 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전공만족도와 자아긍정성은 전공만족도가 높은 그룹이 3.92 ± 0.58 점, 전공만족도와 사회성은 전공만족도가 높은 그룹이 3.67 ± 0.48 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학업성적과 진로정체성의 차이는 학업성적이 높은 그룹이 2.87 ± 0.44 점, 중간 2.68 ± 0.36 점, 낮은 그룹이 2.54 ± 0.31 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학업성적과 자기감성의 차이는 학업성적이 높은 그룹이 4.12 ± 0.56 점, 학업성적과 타인감성의 차이는 학업성적이 높은 그룹이 4.17 ± 0.67 점, 학업성적과 감성활용의 차이도 학업성적이 높은 그룹이 3.77 ± 0.82 점으로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학업성적과 자아통제성의 차이는 학업성적이 높은 그룹의 자아통제성은 3.82 ± 0.60 점, 중간 3.63 ± 0.44 점, 낮은 그룹은 3.49 ± 0.50 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3. 전공만족도, 학업성적, 진로정체감, 감성지능, 자아탄력성의 상관관계

전공만족도는 학업성적, 진로정체감, 감성지능, 자아탄력성의 관계는 <Table 3>과 같다. 전공만족도는 학업성적, 진로정체감, 감성지능, 자아탄력성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p<0.01$). 학업성적은 진로정체감, 감성지능, 자아탄력성과 양의 상관관계가

<Table 2> Differences in career identity, emotional function, and self-elasticity from major satisfaction groups and academic performance groups

Variables	Group with high major satisfaction N=100	Group with middle major satisfaction N=207	Group with low major satisfaction N=11명	Group with high academic performance N=38명	Group with middle academic performance N=216명	Group with low academic performance N=61명
career identity	2.96±0.34	2.57±0.30	2.18±0.26	2.87±0.44	2.68±0.36	2.54±0.31
		F=65.084 p=0.001**			F=9.116 p=0.001**	
Self-sensitivity	4.00±0.56	3.83±0.54	3.54±0.66	4.12±0.56	3.85±0.53	3.79±0.63
		F=5.029 p=0.007**			F=4.565 p=0.011*	
Emotionas of others	4.10±0.55	3.82±0.62	3.97±0.69	4.17±0.67	3.89±0.60	3.86±0.60
		F=7.016 p=0.001**			F=3.822 p=0.023*	
Emotionas of utilization	3.67±0.68	3.31±0.62	2.97±0.76	3.77±0.82	3.43±0.61	3.13±0.68
		F=12.893 p=0.001**			F=11.469 p=0.001**	
Emotionas of control	3.51±0.74	3.34±0.74	3.15±0.52	3.50±0.83	3.40±0.73	3.27±0.70
		F=2.447 p=0.088			F=1.191 p=0.305	
Self-control	3.77±0.48	3.57±0.47	3.40±0.43	3.82±0.60	3.63±0.44	3.49±0.50
		F=7.099 p=0.001**			F=5.552 p=0.004**	
Self-positive personality	3.92±0.58	3.92±0.58	3.45±0.71	3.28±0.66	3.65±0.60	3.56±0.67
		F=14.499 p=0.001**			F=1.997 p=0.137	
Sociality	3.67±0.48	3.42±0.51	3.54±0.44	3.66±0.51	3.49±0.48	3.47±0.59
		F=7.852 p=0.001**			F=2.036 p=0.132	

** p<0.01, * p<0.05

<Table 3> Correlation between major satisfaction, academic performance, career identity,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lasticity

	School year	Major satisfaction 1	Academic performance	Career identity	Emotional intelligence	Self-elasticity
School year	1					
Major satisfaction	.052 0.353	1				
Academic performance	.092 0.102	.278** <.001	1			
career identity	.044 0.432	.541** <.001	.232** <.001	1		
Emotional intelligence	.043 0.446	.241** <.001	.198** <.001	.400** <.001	1	
Self-elasticity	.027 0.636	.261** <.001	.142* 0.011	.440** <.001	.806** <.001	1

** p<0.01, * p<0.05

있었다(p<0.01, p<0.05). 진로정체감은 감성지능, 자아탄력성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감성지능은 자아탄력성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p<0.01).

4.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 만족도, 학업 성적, 감성지능, 자아탄력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8.6%였다(F: 20.690 p=0.001). 진로정체감이 높

을수록 전공 만족도, 학업 성적, 감성지능, 자아탄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Factors Affecting Career Identity

	B	SE	β	t	p
(constant)	13.131	1.956		6.712	<.001
Major satisfaction level	4.450	.477	.439	9.324	<.001
Academic performance	.560	.442	.059	1.268	.206
Emotional intelligence	.052	.050	.078	1.042	.298
Self-elasticity	.105	.031	.254	3.377	<.001
N=318 Adjusted-R ² : .386 F:20.690 p<.001 **					
Durbin-Watson 1.716					

*** p<.001, ** p<.01, * p<.05

IV. 고찰

치위생과 학생들은 졸업 후 치과위생사가 되어 지역사회 주민의 구강건강지킴이 역할을 한다. 치과위생사는 사람들이 구강건강관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한 치료와 따뜻한 위로로 고민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업무를 하는데 이때 단지 직업적으로 만이 아닌 보람과 기쁨을 느끼며 스스로 행복한 사람으로 사회활동을 하려면 진로선택에 대해 만족감과 자부심이 필요하다. 하지만 치위생과 학생들의 입학 동기가 본인의 적성보다는 여러 상황들에 밀려 입학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을 높이는 일련의 과정으로 학생들의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를 조사하고,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교양 프로그램 등 교육과정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자의 진로정체감, 감성지능, 자아탄력성의 정도를 알아본 결과 진로정체감은 전체평균 2.68점이었으며, 감성지능은 3.65점, 자아탄력성은 3.59점으로 조사되었다.

진로정체감은 2.68로 김 등[14]의 연구에서 2.67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나 박과 최[15]의 연구에서는 3.03으로 본 연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와 김 등[14]의 연구는 조사과정에서 4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박과 최[15]는 5점 척도를 사용한 결과라 생각되며, 이에 치위생과 학생들은 진로정체감이 보통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대학생들의 중도 탈락 문제가 대학운영에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19] 다행히 치위생과 학생들은 취업률을 염두에 두고 학과를 선택하여 입학하였기

때문에 진로선택에 대한 불안감이 타전공에 비해 낮아 진로정체감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감성지능의 하위영역 중 타인 감성이 3.92로 가장 높았고, 감성 조절이 3.38로 낮게 나타나 김과 이[1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타인 감성이 높게 나타난 점은 치과위생사의 업무상 환자의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공감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므로 바람직한 결과라 생각된다. 반면 감성조절은 낮게 나타나 이 항목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감성지능은 직무만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와 불안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에는 완충작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예비 치과위생사들에게 감성지능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자신의 감성조절로 대인관계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할 것이다.

전공만족도와 감성지능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김과 이[11]의 연구에서도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으며,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학습 몰입과 학업 탄력성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전공만족도와 자아탄력성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장[12]의 연구에서도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치과위생사의 다양한 진로와 취업에 대한 부담감이 적기 때문에 대학생활에서도 융통성 있게 적응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학생활 중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치위생과 학생들에게 자아탄력성은 성공적인 대학생활 및 전공만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20].

치위생과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는 진로정체감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전공만족도가 높은 그룹일수록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김 등[14]의 연구에서 입학에 만족하는 학생들이 진로정체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조사되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위 결과를 통해 치위생과 학생들의 진로정체감과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교수법 개발과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선, 후배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업성적은 진로정체감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박 등[21]의 연구에서도 진로정체감이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진로정체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업에 대한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명확한 학습전략을 세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치위생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습동기와 학습 몰입임으로[22]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학습 목표와 효율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각자 진로에 대한 방향 설정과 성공적인 진로준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타당성 높은 환경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진로정체감은 자아탄력성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서[23]의 연구에서도 자아탄력성과 진로정체감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마지막으로 진로정체감은 감성지능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전과이[24]의 연구에서도 감성지능과 진로정체감이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 결과로 직업에 대해 긍정적인 목표를 만들어 주고 긍정적인 감성성향을 향상함으로써 진로정체감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으며, 치위생과 학생들의 감성지능을 증가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로정체감을 향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한 결과 전공 만족도, 학업 성적, 감성지능, 자아탄력성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수는 학생들이 학습목표를 이해하고 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열심히 도우며, 학생들은 전공에 대한 흥미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에서 제몫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환경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처함으로써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충남과 경기 일부 3년제 치위생과 학생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에 모든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변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정체감 관련 선행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에서 본 연구를 통해 진로정체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진로정체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며, 나아가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3년제와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변수들을 모색하여 그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감성지능 및 자아탄력성, 진로정체감의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학생들이 치과위생사의 직업에 대한 생각과 직업에 대한 확신을 알아 보았으며,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1. 전공만족도 그룹과 진로정체성, 자기 감성, 타인감성, 감성 활용, 자아통제성, 자아긍정성, 사회성의 차이는 전공만족도가 높은 그룹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2. 학업성적 그룹과 진로정체성, 자기 감성, 타인감성, 감성 활용, 자아통제성 차이는 학업성적이 높은 그룹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p < 0.05$).
3. 전공만족도는 학업성적, 진로정체감, 감성지능, 자아탄력성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p < 0.01$), 학업성적은 진로정체감, 감성지능, 자아탄력성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p < 0.01$). 진로정체감은 감성지능, 자아탄력성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p < 0.01$).
4.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 만족도, 학업 성적, 감성지능, 자아탄력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은 38.6%였다($F: 20.690$ $p = 0.001$).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교수는 학생들이 학습목표를 이해하고 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열심히 도우며, 학생들은 전공에 대한 흥미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에서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환경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처함으로써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Lee HJ: Differences in career openness, career exploration, and career identity by sex and level of social anxiety. *Journal of Korean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46(1):77-99, 2008. DOI: 10.15207/JKCS
2. Cho H, Lee GY: Self esteem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0(2): 163-173, 2006.
3. Holland JL, Gottfredson DC, Power PG: Some diagnostic scales for research in decision making and personality: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6):1191-2000, 1980.

- DOI: 10.1037/h0077731
4. Wong CS, Law KS: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Leadersh Q* 13(3):243-274, 2002.
DOI: 10.1016/S1048-9843
 5. E Sener, O Demirel, K Sarlak: The effect of the emotional intelligence on job satisfaction. *Studies in Health Technology and Informatics* 146:710-711, 2000.
DOI: 10.3233/978-1-60750-024-7-71
 6. Gohm CL, Corser GC, Dalsky DJ: Emotional intelligence under stress: useful, unnecessary, or irrelevant. *Studies in Health Technology and Informatics* 39:1017-1028, 2005.
DOI: 10.1016/j.paid
 7. Block JH, Block J: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Collins WA: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13:39-101, 1980.
 8. Jang HS: Resilience as a factor interrupting psychological disorder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4:113-127, 2001.
 9. Song IJ: A Comparative Study of the Opinion on the Image of Nursing Among the Doctors, Nurses, others Hospital Personnel and the General Public. *The Korean nurse* 32(2):51-62, 1993.
 10. Park MS: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ultural competency in Dental hygiene students. master's thesis, Hanseo University, Seosan, 2017.
 11. Kim YS, Lee JH: The study on the convergence relationship of emotional intelligence, learning flow and academic resilien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10):51-58, 2019.
DOI.org/10.15207/JKCS
 12. Jang SY: A Study on Family Health on Ego Resiliency in the Students of Dental Hygiene College.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4(1):74-80, 2014.
 13. Min HH, Lee HJ: Influence of Empathic Ability and Ego Resilience o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10(3): 97-103, 2022.
DOI: 10.33615//jdhs.2022.10.3.97
 14. Kim CH, Kim JH, Hong SH: Comparison of Career Identity and Professionalism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according to Educational System. *Journal of Korea Acad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2(1):327-334, 2011.
 15. Park KH, Choi HJ: Correlations of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5(2):279-286, 2015.
DOI: 10.13065/jksdh
 16. Kwon YH: Effects of a Ready Planned Self Growth Program through MBTI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Career Ident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2002.
 17. Reivich K, Shatte A: *The resilience factor*. NY Broadway Books, 2002.
 18. Lee YM: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ego-resilienc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in career maturity. master's thesis, Ewha Woman University, Seoul, 2013.
 19. Kim YR, Seong M, Kang HK: The Effects of Academic-Related Characteristics and ASE Model Factors on Learning Persisten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10(3): 104-111, 2022.
DOI: 10.33615
 20. Park JA, Lee EK: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tress coping styles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Nursing Administration* 17(3): 267-276, 2011.
 21. Park YO, Park SJ, Jung H: A Study on the Effects of Employment Community Characteristics on Employment Community Commitment, Job Seeking Efficacy, and Job Seeking Behavior.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7(2): 103-124, 2017.
DOI: 10.35273/jec
 22. Kang YJ, Park HM: Effects of Learning Motivation and Commitment of Dental Hygiene Students on their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9(4): 25-31, 2021. DOI/10.33615
 23. Seo ES: The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Students' Career Identity and Depression. master's thesis, Dongshin University, Naju, 2017.
 24. Jun SY, Lee YJ: The Effects of Nursing Students Emotional Intelligence, Self-elasticity,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Coping on Career Identit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9):767-783, 2020.
DOI: 10.22251/j1cci